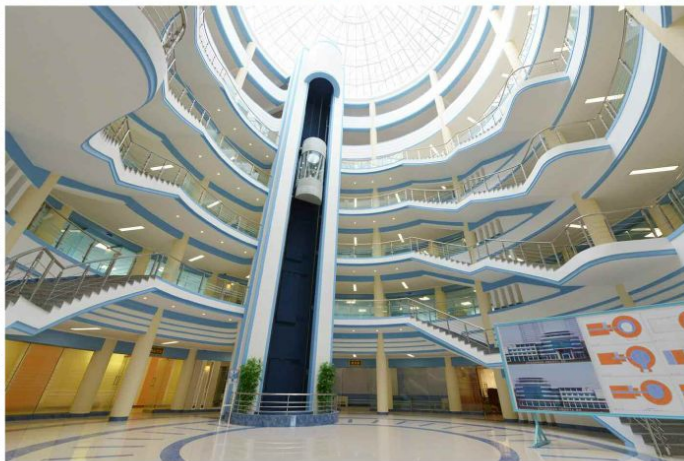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위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전야제일 인공성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제407군부대, 제101군부대 군인

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가 려져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쁜 마음으로 시대를 혁신하면서 수평집단에서 이룩하실 수 있는 력사적책임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이 6월 27일 바젤에서 진행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베르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아담적 인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 하시였으며 그레 10월 10일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일성총비서의 현명한 지도하에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락원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구현된 불멸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진보적 인류와 스위스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신봉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성대히 경축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우리 당의 역센 뿌리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결성 85돐에 즈음하여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들이 시대를 혁신하면서 수평집단에서 이룩하실 수 있는 력사적책임이였다. 시대의 교조가 강렬한 열정을 불태웠던 그대 이제 투쟁의 열정을 활화산처럼 터진 열혈청년혁명가들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가 결성된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대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며 전통이 아니라 대대로 흐르는 생명이었다고 드짐에 회고하시였다. 그 이후로 빛나는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이 소박한 명칭에 동지를 얻는 것으로서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생사를 갈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중국적특색을 이룩해나가시는 백두산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이어졌던가? 우리 당의 태이마니 제삿!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건설명도에서 결성된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 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원의 강급 당조직은 물론 국내당조직들까지 장악되게 됨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제책은 더욱 정면하게 확립되게 되었다. 근교한 현실정세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끔찍한 성과와 경험은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의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 듯이 보여준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 기념의 명운은 오늘날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부총리 겸 부총리 겸 부총리 겸 부총리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베에르 은쿠룬지 자카 하

나는 부룬디 독립 53주년을 축하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조선의 정치·경제적변명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6월 30일 평양

뚜니스

뚜니스 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지르 까이데 및 썩싸라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있는 레조사건으로 수평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레조를 반대하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연대성을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7월 1일 평양

제거후 만 남달리던 빈마우에서 베른으로 트라프도르와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천 마리의 시대를 열기때에 앞장선 사명들로 다름이없는 우리 당원들이었다. 존엄한 혁명의 선배마다 당과 수평수 받들이 이념대 인민의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 듯이 보여준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 기념의 명운은 오늘날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그리곤 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선군시대를 빛내이고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써 줄을 강철의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성은 조선로동당은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렬하시게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더욱 강하게 되고있으며 당원들은 이제 날 건설동지사신원들의 모습으로 선군시대의 앞장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 그렇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빛은 오늘날도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승리행로에서 새 세대에 늘어난 건설동지사의 맥박과 숨결은 언제나 먼 전진척도 및 보전척도 되었다. 85년 전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가 첫 당조직신원들이 공개 간직한 수평명사수평의 신념과 의지는 불멸의 선군명왕의 높이 모신 선군시대의 수많은 건설동지사신원들의 심장마다에서 세차게 박박치고 있다. 선군의 가치로서 전진하는 영광으로 우리 당, 조선로동당! 세월이 아무리 흐르다 해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 떠날바 없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고귀한 의명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기사자 김철남